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운동



우영균 교수
상지대학교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

1. 로컬푸드 운동의 배경과 의의

우리나라 지역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농촌은 고령화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수입농축산물의 증가와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새로운 질병, GMO 농산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유럽과 북미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살기 좋은 도시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업마저도 끌어들이어 상업적 이해타산을 맞추기 위한 효율성과 경제성의 잣대만으로 농업 생산 방식과 유통방식이 결정되고, 결국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들의 식탁에는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다양하고 풍부한 먹거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

된 농산물이 아니라 몇 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는 수천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외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유기적 관계 단절 및 장거리 대량유통은 생태계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먹거리의 기본요건인 안전성, 영양, 신선도마저도 위협하게 되었다. 나아가 생산성·효율성에서 뒤떨어지는 소농의 몰락을 초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地產地消)운동, 영국 및 캐나다의 야채박스 프로그램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로컬푸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로컬푸드 운동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품(로컬푸드)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도록 하려

는 지역공동체운동이다. 여기서 ‘지역’의 범위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감 및 신뢰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대체로 반경 50km 정도의 범위 안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로컬푸드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로컬푸드 운동에서는 운송시간에 따른 신선도의 유지와 운송수단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므로, 50km 반경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도 대도시의 도매시장 등 역외 유통경로를 거쳐 다시 생산된 지역으로 U턴해 들어옴으로써 긴 식품 운송거리(food mile)를 가지게 된 것은 로컬푸드로 보지 않는다. 즉,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지역 내 유통(가능하면 직거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로컬푸드 운동의 방법과 효과

지역내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당연하고 손쉬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글로벌 경제가 지배하는 현재는 이런 당연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로컬푸드 운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식시키고, 로컬푸드의 지역 내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그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주요 실천 방안으로서는 공동체 지원농업, 농민시장, 도시농업 육성,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농산물 단체급식 등이 있다.

▶ **공동체 지원농업(CSA : Comunity**

Supported Agriculture) : 생산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하는 계약영농, 소비자가 생산자의 영농을 미리 지원하고 생산자의 위험을 공유하며, 나중에 수확물을 분배받는 것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농업.

▶ **농민시장(Farmer's Market) :** 생산자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통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증대와 신뢰구축.

▶ **도시농업 :** 경제적으로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 도시 및 도시근교의 유희농지에서 직접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산물은 생산자와 그 이웃이 소비함으로써 여기활동과 체험교육을 극대화.

▶ **공공기관 구매조달 :** 지역의 국공립학교를 비롯한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군대, 병원, 기업에서의 급식에 지속가능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영양보조 사회복지프로그램(푸드뱅크, 결식아동 보조 등)에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건강과 영양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 **로컬푸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로컬푸드의 가공, 유통, 소비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식품가공업체, 대형마트, 지역모범

음식점 등). (제8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회의 발제 자료집, 2006에서 인용).

로컬푸드 운동은 이런 실천방안을 통해 지역농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식원성 질병의 예방,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 개선 효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생태 및 먹거리 교육과의 연계, 저소득층의 먹거리 지원과 소농의 생계보장,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식품의 보존 등 건강, 환경, 교육, 경제, 사회복지,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로컬푸드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제시해 보면 <그림-1>과 같다.

3. 로컬푸드 운동의 실천과제와 친환경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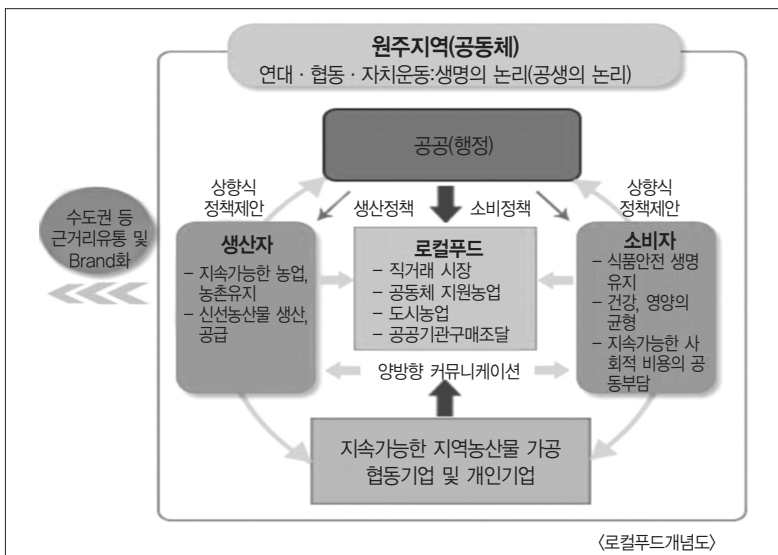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로컬푸드 운동이 소개된 것은 2005년 무렵으로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식운동에서의 지역농산물 이용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장터가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로컬푸드 운동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이하,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가. 로컬푸드 운동과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효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점은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지역농산물에의 신뢰와 환경보전에 대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는 향후 로컬푸드 운동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견인력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그런 점에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적인 교류에 의한 상호신뢰와 유대관계의 강화는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가격 결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도농간의 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1> 로컬푸드의 개념도

나. 로컬푸드 인증제도

로컬푸드의 소비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농산물 여부를 판별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로컬푸드를 조직적 소비에서 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에 한해, 생산자조직이나 소비자조직을 중심으로 간소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는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음식점 및 가공업체의 지역농산물 원재료 비중에 따른 로컬푸드 업체(또는 로컬푸드 가공식품) 인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와 인증 기준 등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비 다양성에의 대응

로컬푸드 운동에서 가장 큰 제약은 특정지역의 한정된 생산 공간으로 인해 소비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의 CSA 운동에서도 소비자가 CSA를 탈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구성문제(다양성 및 선택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비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의 농축산물 품목별 수급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기별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공급이 어렵거나 부족한 품목은 생산자조직 간의 연대 사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하며, 중층적 지역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품목에 따른 광역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1〉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의 주요내용

| 분야 | 실천과제 | 추진방향 |
|---------|------------------------|--|
| 공통 | •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의 확산 | • 한국형 로컬푸드의 개념 정립 • 로컬푸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
| | • 로컬푸드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원 정책 • 로컬푸드 인증제 실시 |
| 생산 및 가공 | •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친환경농업의 확대 • 도농교류의 확대 |
| | • 소비 다양성에의 대응 | • 품목 다양화 및 생산자조직 간 연대 • 지역 식품수급에 관한 조사 연구 |
| |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 • 친환경농법 및 농자재 기술개발 • 친환경직불제의 확대 |
| 유통 | • 로컬푸드 가공식품의 확대 | • 농장형 식품가공 산업 육성 • 로컬푸드 음식점 인증제 실시 |
| | • 공공기관 급식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 • ‘로컬푸드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의한 급식 프로그램 및 유통체계 지원 |
| 소비 | • 농민시장 및 로컬푸드 직판장 활성화 | • 농민시장과 로컬푸드 직판장의 정기화 및 상설화 |
| | • 식생활 및 식품구매에 관한 인식 변화 | • 제철 음식의 장려 • 포장 및 규격 간소화에 관한 교육·홍보 |
| | • 지역농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변화 | • 지역공동체 발전, 식품 안전성,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 등의 교육·홍보 |
| | • 도시농업의 보급 |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 재배기술 교육 및 농가 실습 |

라. 공공기관 급식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립

최근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의 증가와 함께 급식재료로서 국내산 농산물이나 지역농산물을 중시하는 인식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의 지역농산물 이용률은 아직 낮은 편이며, 그 가장 큰 요인은 수급문제와 공급업체 확보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의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의 생산자와 학교급식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나 정보교환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위태석, 2004). 한편, 친환경농산물

의 경우에는 가격이 관행농산물 보다 높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과의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단체급식에도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이용률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의 지원과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4. 맺는 말

친환경농업이 식품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이 조차도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점차 상업화 되어 가고 있으며, 유기 식품의 수입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친환경농업의 이런 맹점을 보완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지역농업 활성화, 환경보전은 물론 교육, 문화,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신토불이’가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의 논리였다면, ‘로컬푸드(지역 먹거리) 운동’은 안전한 농산물과 환경보전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된 논리가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친환경농업은 이를 가장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공동체와 먹거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㉞

》》 참고문헌

- 김종덕, 「식량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계간 농정연구』통권 15호, 농정연구센터, 2005
 김태곤,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계간 농정연구』통권 15호, 농정연구센터, 2005
 박덕병, 「미국의 공동체 지원농업」, 『계간 농정연구』통권 15호, 농정연구센터, 2005
 브라이언 핼웨이, 김종덕·허남혁·구준모 역, 『로컬푸드』, 도서출판 시울, 2006
 위태석,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방안 - 국내농산물 이용촉진의 관점에서」, <http://www.farp.info/sub/download/>, 2004
 하타노 타케시, 송동홍 역, 『유기농업의 경제학-산소제휴(産消提携)의 네트워크』, 日本經濟評論社, 1998, pp. 10~22
 허남혁, 「로컬푸드의 등장 배경과 향후 제도화의 가능성」, 브라이언 핼웨이, 『로컬푸드』, 도서출판 시울, 2006, pp. 258~272
 제8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회의 발제 자료집, 대회조직위원회, 2006
 橋本卓爾(하시모토 타쿠지) 외, 『食農(食農)經濟學』, ミネルヴァ書房, 2004